

대학 도서관의 장서 개발에 관한 연구

육군사관학교 도서관

조 경 숙

< 목 차 >

- | | |
|--------------|--------------------|
| 1. 서 론 | 4. 장서개발을 위한 발전적 제안 |
| 2. 장서개발정책 | 5. 결 론 |
| 3. 자료 선정의 주체 | |

1. 서 론

모든 것이 풍요롭던 1960년대 미국 도서관계에서는 예산이나 인적 자원의 부족을 느낄 수 없었으며, 출판물이 대폭 증가하고, 수많은 각종 양서(best book)목록으로 인하여 사서들은 자료를 선별할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했고, 자료를 선택할 시간에 이용자들에 대한 봉사를 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고 생각하여 '選擇無用論'¹⁾이 팽배하였다. 그러나, 1960년대 중반 이후 L. B. 존슨 대통령이 월남전에 미 지상군을 직접 투입하면서 대규모의 戰費를 사용하게 되어 미국내 모든 기관에서는 긴축 재정을 시행하게 되었고, 이 여파로 도서관에서도 '選擇不可避論'이 출현하게 되었다.

1990년대 이후 정보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새로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개발, 도입에 대한 증가비용 등에 재정적 지원이 많이 요구되어 온 반면, 도서관들의 예산확보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과 영국에서도 단행본 및 저널 예산이 대폭 삭감되어 도서관 상호 대차 등 다른 도서관과의 정보공유에 의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²⁾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미국처럼 풍요롭던 시기가 없었기 때문에 '선택무용론'이란 것은 생각할 수도 없었고, 항상 빠듯한 예산 내에서 자료를 선정해야 했기 때문에, 도서선택, 자료 선정, 혹은 장서개발에 관한 많은 관심과 연구를 하게 되었다. 특히 지난 1997년 IMF 구제금융 사태로 인하여 장서개발은 도서관의 필수불가결한 명제가 되었으며, 대학도서관도 예외일 수는 없었다. 모기관의 긴축 재정으로 도서관의 재정 및 인원 감소 등은 장서개발 담당사서 혹은 수서 담당사서들을 더욱

1) 梁炳訓. "資料選擇理論에 관한 考察", 《國會圖書館報》 제30권, 4호(1993. 7-8). p. 18.

2) 이하범. "학술정보의 전자적 배포와 대학 도서관 장서개발 정책의 변화", 《사대도 협회지》 창간호(2000. 1) p. 184.

더 어렵게 만들었다.

이러한 사실은 《國立大學圖書館報》의 1996년부터 2000년까지의 통계로도 확인이 되었다. 1996년부터 2000년까지 5년간 전국 9개 주요 국립대학교 도서관³⁾의 자료구입 예산을 확인해 본 결과, 자료 가격의 인상요인에도 불구하고 연차적으로 자료구입비가 증가하지 못하고 1999년에는 오히려 대폭 감소하였으며, 2000년도에도 회복하지 못한 채 대부분이 정체상태에 있다.

지식과 정보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시대에, 도서관은 이용자들의 다양한 정보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대량으로 생산되는 인쇄매체와 더불어 전자매체의 출판도 날이 늘어가고 있다. 아무리 재정이 풍부한 도서관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인쇄 및 전자 출판물을 모두 수집할 수는 없다. 현실적으로 도서관의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이용자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자료를 선택적으로 수집해야 하며, 이용자들의 요구를 신속히 반영하여 최적의 장서를 구축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된다. 정보량의 폭발적인 증가, 재정적인 어려움, 자료의 가격인상 등의 이유로 도서관이 모든 자료를 입수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도서관에서는 장서량을 확보하는 것

보다는 어떤 방법으로 이용자의 요구를 적시에 충족시켜줄 수 있는가로 장서개발의 방향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대학도서관은 학문창조의 연구기능, 학문을 전수하는 교육기능, 학문을 응용 보급하는 봉사기능 등의 대학의 기능을 개별적으로나 전체적으로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심기관이다.⁴⁾ 대학도서관은 대학교육 지원에 필요한 모든 도서관 자료를 선정, 수집, 정리, 보존하여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며, 각종 서지작성, 문헌의 분석처리 기능 등을 수행하고, 점차적으로 인터넷 및 각종 전자매체가 활성화 되면서 이용자들에게 정보의 접근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그 역할을 다양화시키고 있다. 그러므로 도서관의 기능에 전통적인 所藏의 개념외에도 접근의 개념을 추가하게 되었고, 원격 접근에 대한 관심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대학의 중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대학내의 모든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각각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체계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자료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이용자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는 점이 많이 있다. 인적 능력과 예산의 제한성이라는 현실 속에서 소중한 예산을 들여서 구입한 장서가 이용되지 않는 것은 장서구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므로, 장서개발 측면에서 깊은 관심을 갖고 질 좋은 장서가 비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3) 강원대, 경상대, 경북대, 부산대, 서울대, 전남대, 전북대, 충남대, 충북대 등 9개 대학도서관의 5년간 단행본 및 연속간행물 구입예산, 대학 전체 예산 증감 및 자료구입비의 증감을 「國立大學圖書館報」 15輯(1997)-19輯(2001)의 기본 통계로 비교하였다.

4) 류인석. “한국대학도서관의 장서 개발정책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2. p. 1.

이 연구에서는 장서개발의 의의와 장서개발의 목적, 장서개발을 수행하기 위한 장서개발정책에 관하여, 그리고 장서개발정책의 핵심부라 할 수 있는 대학도서관 자료선정의 주체가 갖추어야 할 자질 및 대학도서관이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장서개발의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2. 장서개발정책

2.1 장서개발의 정의

장서개발(collection development)이란 용어는 도서선택(selection), 수서(acquisition), 장서구성(collection building)과 뚜렷한 구별이 없이 사용되어 왔는데, 현재는 이들 세 가지를 모두 포함한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다.

장서개발이란, 장서구성을 현실적인 장서이용의 관점에서 뿐 아니라 장서구성에 관련된 전체적인 사실을 통하여 파악하는 것이다.⁵⁾ 즉 바우만(J. C. Baughman)이 정의한 장서계획(collection planning), 장서수행(collection implementation), 장서평가(collection evaluation)가 서로 합쳐진 통합개념이다. 도서관 자료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와 이용자의 요구 및 만족도에 대한 조사가 끊임 없는 순환과정 속에서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부단한 연구가 요청되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접근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에델만(Hendrick Elelman)에 따르면 장서개발은 계획기능

5) 양병훈. “대학도서관 장서개발을 위한 계량적 분석: 장서 효율성을 중심으로”, 《도서관》 Vol.41, no.3(1986.6). p. 7.

이고, 도서선택은 장서개발목표를 수행하는 의사결정 과정이며, 수서는 선택결정을 수행하는 것⁶⁾이라고 하였다.

웨슬링(Wesling)은 “도서관 이용자에게 정보접근을 빤틈없이 제공하기 위해서는 장서개발에 대한 정의에 장서 및 자료접근 모두를 포함하는 것으로 바꿔야 한다.”고 하여 소장 장서에 대한 구축뿐만 아니라 자료접근을 위한 정보의 추가적 관리를 강조했다.⁷⁾

장서개발의 핵심부는 균형있는 장서개발이라 할 것이다.

건물을 지을 때 기초공사부터 충실히 하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틈새를 채워 나갈 때 튼튼한 건물이 완성되듯이, 장서구성(collection building) 또한 장서를 가지고 건물을 완성시킨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된다. 장구한 세월이 흘렀을 때 그 도서관의 장서구성 혹은 특정 주제분야의 장서구성이 잘 되었다고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더불어 계속적인 장서상의 틈새(gap)를 채워 나가는 사서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⁸⁾

장서개발정책에 대한 용어 설명 중 가장 쉽게 이해되는 것이 펑(Y. T. Feng)의 정의이다.

6) 류인석. “한국대학도서관의 장서개발정책과 지침작성에 관한 연구”, 《圖書館學》 22집(1992. 6). p. 113.

7) Chapman, Liz ; 안정아 역. “도서관의 협력적 장서개발: 자료의 공동구입을 통한 경제성 향상”, 《國會圖書館報》 제35집, 제4호(1998. 7-8). p. 78.

8) 梁炳訓. “대학도서관 장서평가방법에 관한 고찰: 장서개발 측면을 중심으로.” 《國會圖書館報》 제28권, 제4호(1991. 7-8). p. 44.

펭은 장서개발과 도서선택의 차이를 “장서개발정책은 도서선택의 대용물이 아니다. 그것은 숲을 조성하는 것이지 나무를 심는 것이 아니다.”⁹⁾라고 설명했다. 그는 도서선택을 하나 하나의 나무를 심는 일에, 그리고 장서개발정책은 숲을 조성하는 것에 비유하였다. 즉 도서선택이란 각각의 특정자료를 선정하는 일이고 장서개발정책은 장서를 체계적으로 조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장서개발정책은 바로 도서선택이나 수서보다 더 많은 내용을 아우르기 때문에 포괄적이며 적절한 용어인 것이다.

2.2 장서개발정책의 목적

장서개발정책의 목적은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업무의 계속성 유지와 평가, 장서의 균형유지, 출판량 급증에 대한 대처, 커뮤니케이션의 수단, 도서관 협력, 공간문제, 공중에 대한 홍보 그리고 장서 선택자의 개인적 편견 배제 등 제반 문제를 고려하여 해결하려는 데 있다.

미국 도서관협회 자료기술봉사부 장서개발위원회(Collection Development Committee, Resources and Technical Services Division, American Library Association)에서 작성한 “장서개발정책 작성지침(Guidelines for the Formulation of Collection Development Policies)”에서는 3가지 측면의 목적을 기술하였다.

첫째, 선택자가 정해진 목표에 따라 보다 일관성 있게 일을 하도록 한다. 이렇게

해서 보다 강력한 장서를 형성하고 보다 현명하게 제한된 예산을 사용한다.

둘째, 현 장서의 성격과 범위와 계속적인 장서개발계획에 대해서 도서관 직원, 관리자, 이사회, 그리고 기타 관계인사에게 알린다.

셋째, 예산할당 과정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정보를 마련한다.

이 위원회는 장서개발활동을 위하여 조직되었으며, 그 활동 내용은 미국내 도서관에 소장된 현재 자료와 장서개발 협조에 대한 연구, 선택정책의 정의에 대한 지침개발, 장서개발에 대한 선택도구의 추천과 평가, 그리고 선택담당자의 자질과 필수교육에 대한 천거 사항 등에 관한 것이다. 이 중 장서개발 활동지침으로는 장서개발정책 입안지침, 도서관 장서 효율성 평가 지침, 도서관 장서 검토지침과 도서관 자료예산의 배당지침 등이 있다.¹⁰⁾

장서개발정책의 필요성에 대하여 펭(Y. T. Feng)은 4가지를 얘기하였다.

첫째, 장서개발을 하고 있는 도서관이 현재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장서의 양적, 질적 증가와 최신성을 유지한다.

둘째, 장서개발정책은 도서관 자원이 일관성과 균형을 가진 장서로서 발전하게 한다. 장서구성이 합리적인 방향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현재의 요구와 더불어 미래에의 요구가 반영되어야 한다.

셋째, 장서구성에서 특수한 관심사를 반영하도록 하는 외부의 압력에 대해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모든 논제에 대해 모든 관점에서 기술된

9) 류인석. “한국 대학도서관의 장서개발정책과 지침작성에 관한 연구”. p. 113.

10) 류인석. 「자료개발정책론」. 서울 : 도서관협회, 1998. p. 27.

자료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넷째, 협력관계에 있는 타 도서관과 자원공용에 관심있는 외부 도서관에 대해서 해당도서관의 장서구성의 방침을 알려준다.

이 밖에도 가드너(Richard K. Gardner), 봉크와 매그릴(Wallace John Bonk & Rose Mary Magrill), 에반스(G. Edward Evans), 캐츠(William A. Katz), 오스번(Charles B. Osburn), 밀러(Laurence Miller), 미국 연구도서관협회 경영연구소(Association of Research Libraries, Offices of Management Studies) 등도 저마다의 이론을 제시했는데 이들을 바탕으로 장서개발정책의 목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장서개발정책을 마련함으로써 장서의 균형과 일관성을 유지하게 되고, 예산을 적절히 분배하여 사용할 수 있고, 선정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으며, 업무의 계속성이 유지되고, 일상업무와 의사결정의 도구로 삼을 수 있으며, 업무 평가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고, 개인간, 도서관내, 도서관 시스템내, 그리고 협력도서관간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장서 선택 담당자의 편견을 배제하는 도구가 되며, 직원교육과 자질 향상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고, 이용자 및 관리자, 지역사회 주민에 대한 홍보가 되며, 현재의 이용자와 잠재적인 이용자의 요구를 파악할 수 있으며, 자료 폐기의 기준을 마련하게 되고, 자원공용에 관심이 있는 외부 도서관과 상호 협력을 유발하게 되고, 모든 지식영역에서 정보의 변천 과정과 학문의 진보에 영향을 끼치는 학문 지원의 도구가 된다.

이러한 많은 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서개발정책이 도서관에서 행해지는 일상업무 절차를 그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너무 관념적이고 현실과 동떨어진 나머지 도서관의 일상업무에 직원 모두가 항상 참고해야 할 작업도구가 되지 못하고 사장되어 버리고는 한다. 또한, 도서관 행정가가 정책 실시를 무리하게 강요함으로써 사서들이 장서개발정책을 고의적으로 무시해 버리려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며, 성문화된 정책의 최신성 유지에 어려움이 따르기도 한다. 그러나 장서개발정책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장서개발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사서들의 인식부족이다. 도서관이 소규모이므로 장서개발정책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장서개발정책을 작성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거나,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결국 장서개발정책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도서관이 적은 결과를 낳게 하였다.¹¹⁾

2.3 장서개발정책 수립 단계

장서개발정책이란 도서관 장서를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정당화하고 장서개발에 대한 일상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침이며 성문화된 문서이다.

국내의 장서개발정책 모형에 관한 논문으로 류인석¹²⁾과 조은미¹³⁾의 학위논문 등

11) 송영희 외. 「장서개발론」. 서울 : 구미무역, 1992. pp. 37-38.

12) 류인석. “한국대학도서관의 장서개발정책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2.

13) 조은미. “대학도서관 장서개발정책모형

이 있다.

2.3.1 장서개발 계획의 수립

대학도서관의 장서개발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정책의 계획을 세워야 하며,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개발될 장서의 영역에 대한 통일된 견해를 가져야 하고, 장서개발에 대한 책임의 차이를 조정해야 하며, 장서에 관한 일관성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장서개발계획 수립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대학의 목표 : 대학의 현재와 미래의 목표를 암시하는 것은 대학도서관 장서개발계획에 있어서 중요한 근본원리가 된다. 예를 들어 기구의 확장이나 신설 등은 이용자가 필요한 자료 형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② 도서관의 목적과 특성 : 도서관의 목적과 목표는 정책결정에 가장 핵심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대학의 목적에 따라 도서관의 자료가 교육목적과 연구계획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정책결정자와 장서개발담당자는 도서관 목적과 목표를 깊이 인식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시켜야 한다.

③ 학생과 교수의 수 : 정보자료의 이용자들로서 이들의 다양한 요구를 장서개발정책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어야 하고 학생의 수와 교수의 수는 자료의 형태를 결정해 주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

다.

④ 교과과정 : 대학에 있어 현재 및 미래의 교육과 그 대학의 연구계획 수립에 기본이 되는 것으로 그 대학의 학위프로그램, 교과과정과 연구방법에 따라서 장서구성의 방향이 결정되어야 한다. 대학에서 새로운 학과와 특수한 강의 개설과목을 신설할 계획이 있거나, 대학원의 설치 계획 및 특수한 연구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⑤ 교수의 관심 연구 분야 : 교수들의 관심 연구 분야는 지식, 자질의 계발, 교과과정, 기관에 대한 공헌을 한다. 관심 연구에 관한 정보는 개인적인 접촉이나, 교수들과의 토론을 통해서, 혹은 보다 조직적으로 요구의 평가조사에 의해 수집한다.

⑥ 이용도와 요구 : 균형 있고 합리적인 장서구성이 되려면 단순한 출판물 발행정보만으로는 부족하다. 따라서 이용도 조사, 요구의 예측 등은 장서구성에 현실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서 이용자 요구에 관한 정보는 대출통계나 대출자료에 의해 얻어질 수 있다.

⑦ 장서의 평가 : 도서관 장서의 균형과 적절성을 조성하고 참신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항상 장서규모 및 내용에 대한 자체평가를 함으로써 장서의 이용과 관리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평가를 통하여 가치를 상실한 불용도서를 폐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된다.

⑧ 자료구입 예산 : 자료구입예산은 교과과정에 관련된 주제분야와 대학이 주관하는 모든 연구계획에 적절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하여야 하며,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 할 경우 대학의 교육

개발에 관한 연구:인식 조사를 기초로 하여". 상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3.

계획 및 연구계획을 줄이거나 새로운 교육과정의 설치를 연기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다른 모든 요인이 만족되어도 자료구입예산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아무리 이상적인 장서개발정책을 갖고 있어도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

이러한 요인들을 고려하여 작성된 상세하고 효율적인 성문화된 장서개발정책은 자료선택의 타당성과 예산요구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등 도서관의 입장을 확실히 해줄 뿐 아니라 장서구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2.3.2 장서개발정책 수립 과정

- ① 장서개발정책의 수립에 참여하는 인원을 정하고, 정책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과 형식을 결정한다.
- ② 장서에 대한 주제명세서와 다른 부문의 정책에 대하여 예비작성을 하고, 그 적절성을 장서개발위원회에서 검토 조정하며, 다른 부문의 정책을 작성하고 추가될 부분을 점검하여 다시 작성한다.
- ③ 각 부분별 정책을 통합하여 전체의 정책을 완성한다.
- ④ 도서관장은 완성된 정책의 수행 가능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고 정책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과 제안을 반영하여 수정한 후 장서개발정책을 완성한다. 완성된 장서개발정책은 승인을 받기 위하여 장서개발위원회에 제출한다.

2.4 장서개발정책 구성 요소

성문화된 장서개발정책은 그 기관의 목

표와 장서개발 관계를 명확하게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상의 선정업무에 실제적인 지침이 되며 도서관에서 이루어지는 선정업무를 정당화하는데 도움을 준다.

가드너(Richard K. Gardner)는 9가지 장서개발정책 구성 요소를 열거하고 있다.

- ① 서문 : 장서개발정책의 필요성과 봉사되고 있는 대상과 지역사회에 대해 서술한다.
- ② 원칙과 목적 : 도서관의 목적과 모기관의 목적을 기술한다.
- ③ 자료의 선정 : 장서개발정책의 핵심부로서 자료선정업무와 선정의 책임자에 관한 것을 설명한다. 즉 선정업무에 사용되는 기준과 선정도구에 관한 것을 제시하여야 한다.
- ④ 기타사항 : 자료의 복본과 분실된 도서의 대치본, 제본에 관한 사항이 제시된다. 또한 이용자들이 요구하는 도서의 구입에 관한 사항도 제시한다.
- ⑤ 특수자료 : 연속간행물, 신문, 팜플렛, 사진, 시청각자료, 전자자료 등에 관해서도 다뤄야 한다.
- ⑥ 기증 : 도서관은 기증자료의 선별에도 일정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 ⑦ 폐기 : 폐기에 관한 책임을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어떤 자료를 어떤 방법으로 폐기하고, 폐기된 자료는 어떤 방법으로 처분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 ⑧ 지적인 자유 : 장서에 관한 이용자의 정보요구에 대해 대처하는 방법과 자료의 검열에 관해서 고려해야 한다.
- ⑨ 정책의 개정 : 장서개발정책의 최신성 유지와 개정에 관한 문제는 중요하다. 대학의 교과과정 변화와 봉사의 다른 측면

을 요구하는 경영진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기적인 정책의 평가와 개정이 요구된다.

에반스(G. Edward Evans)는 장서개발 정책 3요소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① 일반적인 목적

㉠ 봉사되는 지역사회와 이용자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서술한다.

㉡ 장서의 매개변수 즉 현재 장서중에서 대표적인 주제분야와 장서구성에 있어서 도서형태와 비도서형태의 제한점에 관하여 서술한다.

㉢ 그 도서관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종류와 이용자들의 요구에 관하여 자세하게 거론한다.

㉣ 장서개발의 문제를 결정할 때 일반적인 제한점과 우선권에 관하여 밝혀야 한다. 소급적인 자료의 수집시 그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복본의 구입문제에 있어서 몇 권을 구입하고 어느 기간동안 복본을 보유할 것인지 설명하는 것이다.

㉤ 협동적인 장서개발 계획에서 도서관의 역할에 관하여 논의한다.

② 수집하는 장서의 주제영역과 형태

㉠ 일반적인 범위(general coverage) : 인기 있는 도서에 한해서 구입하고 참고도서는 여기에서 제외된다.

㉡ 교육용 또는 학습용 장서(instructional or working collection) : 소급자료는 구입하지 않고 최신의 자료를 기본으로 구입한다.

㉢ 포괄적인 장서/연구용 장서(comprehensive / research collection) : 참고도서와 일반도서를 포함하여 최근 출판물은 물론 소급자료, 특히 희귀도서나 필사

본, 기록물도 포함하여 모두 구입한다.

④ 망라적 장서(exhaustive collection) :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최신 자료와 소급자료를 구입하고 장서의 폐기는 하지 않는다. 어떤 자료가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특별한 자금을 요구해야 한다. 잠재적인 중요성을 지닌 모든 추가자료에 관한 정보는 각 부서장이나 도서관장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장서의 수집 외에 자료의 선정을 위한 일반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선정에 참여하는 계층은 이용자 또는 특별한 훈련을 받은 주제전문사서들, 각 부서의 장들, 그리고 도서관장을 들 수 있다.

③ 기타 제반사항

㉠ 기증 : 어떤 기증자료를 받아들일지에 대한 기준이 있으면 폐기에 따른 문제를 감소시킬 수 있다.

㉡ 폐기 : 폐기의 기준, 범위, 빈도수, 목적 같은 문제들에 관한 결정사항은 정책에서 조정되어야 한다.

㉢ 대치와 복본 : 대치자료의 구입시기와 구입기준, 구입량과 같은 문제들은 매우 복잡하지만 대치도서와 복본에 관한 지침이 있다면 시간의 절약과 업무의 고충을 덜 수 있다.

㉣ 정보요구와 검열 : 장서개발정책에서 장서에 관한 이용자들의 정보요구와 검열에 대처하는 방법을 제시함으로서 사서들의 어려움을 덜 수 있다.

㉤ 평가 : 정책의 마지막 부분에는 장서를 평가하는 방법과 평가의 목적을 상세하게 서술해야 한다. 장서의 강약

점만 평가할 것인지, 자료선정자의 업무수행 정도를 평가할 것인지를 명시해야 한다. 이런 사항을 기록하고 인정함으로써 시간을 절약하게 되고, 직원, 이용자, 경영진의 고충과 예산문제의 해소에 도움을 준다.

골만(G.E.Gorman)은 장서개발정책 구성요소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 기술하고 있다.

① 일반적인 정책에 관한 것 : 각 도서관의 장서개발정책의 원칙, 도서관의 업무, 선정에 관한 일반적인 우선순위 및 협동 계획과 네트워크 등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밝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 서문 : 정책에서 검토할 윤곽을 제시한다. 즉 장서개발의 책임자, 이용자 의 의도와 범위, 정책의 수립계획과 그 과정에 관련되는 사람들에 관하여 기술한다.

㉡ 기관의 원칙 : 정책의 전반적인 범위와 존재 이유, 기관과 도서관의 목표, 요구, 우선순위를 밝힌다.

㉢ 장서에 관한 매개변수 : 이용자, 지역 사회, 장서의 주제범위, 장서가 지원하는 프로그램, 장서의 제한점 그리고 협력적인 협정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㉚ 장서수준에 관한 것 : 장서의 적합성과 부적합성을 이해해야 하고 장서가 구성되고 이용되는 방법을 이해해야 한다. 장서의 주제분석에서는 포괄적인 장서개발정책이 되도록 장서의 현재상태와 수준, 미래의 수준에 대한 계획을 분명하게 명시해야 한다. 그리고 장서의 주제별 수준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되는 기호화된

언어(coding language)는 모든 도서관에서 허용될 수 있는 표준기호(standard code)여야 한다. 주제분석의 또 다른 방법으로 분류표를 사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여러 가지를 종합한 장서개발정책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다.

① 서문 : 대학의 특성, 도서관의 장서수, 직원수 같은 현황을 밝히고 봉사해야 할 대상에 관하여 기술한다. 그리고 장서개발정책의 작성 이유에 대해서도 기술한다. 도서관과 도서관이 속한 모기관의 목적과 목표를 밝힌다. 또한 도서관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종류와 이용자의 요구에 관하여 기술한다.

②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 선정에 사용하는 기준과 선정에 참여하는 사람, 선정의 책임자, 선정방법, 선정도구에 관하여 기술한다.

㉡ 자료의 수집이 이루어지는 방법과 중점적으로 수집될 분야에 관하여 기술한다. 구체적으로 장서의 수집수준과 수집되는 자료의 주제, 형태, 언어, 시대, 지역적 범위에 관해서 기술한다.

③ 장서개발위원회(혹은 자료선정위원회) 대학도서관의 원활한 장서개발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자료의 선정, 별치, 그리고 폐기 등 장서개발정책에 관한 제반 문제에 대하여 심의와 조정 역할을 하는 장서개발위원회를 둔다. 그리고 위원회의 구성, 회의 개최시기, 장서개발위원회 임무 등의 세칙을 둔다.

④ 자료의 구입 : 자료를 구입하는 방법에 관하여 기술한다.

⑤ 기증 및 교환 : 도서관에 기증되는 도서를 모두 받아들일지 혹은 선별하여 받

아들일지에 관하여 규정사항을 정하여 구입하기 어려운 자료의 획득을 용이하게 하여 자료의 질을 추구한다.

⑥ 그 외의 제반사항 : 분실도서의 대처 본에 관한 사항, 제본에 관한 규정, 복본도서의 수, 도서관에 꼭 필요하지만, 구입이 어려운 도서의 복사·제본에 관한 사항, 특수형태 자료의 선택과 관리에 관하여 기술한다.

⑦ 상호 협력 : 한정된 예산으로 이용자 의 모든 요구에 대처할 수 있는 자료를 다 갖출 수 없으므로 도서관 상호협력을 통해서 이를 해결하며 상호 협력시 고려할 사항(상호협력 기관, 상호대차 자료, 상호대차 비용, 자료의 배달 기간 등)에 관하여 기술한다.

⑧ 지적 자유 : 이용자들의 장서에 대한 요구가 생길 경우 이에 대처하는 방법에 관한 규정을 제시한다.

⑨ 예산 : 균형 있고 체계적인 장서개발을 위해서는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하여 여러 측면을 고려한 예산 배당 원칙이 있어야 한다. 이에 부수된 사항으로 도서관과 각 학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예산 비율, 각 학과별 예산 배정 기준, 자료형태별 예산 배정, 국내자료와 외국자료의 예산 비율, 자료구입 예비비 등에 관하여 기술한다.

⑩ 장서 유지와 관리 : 분실과 파손된 도서 확인 등을 위한 장서점검에 관하여 기술하고, 자료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자료의 별치에 관하여 기술한다. 자료의 적절한 규모 유지와 공간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폐기에 관한 규정도 있어야 한다. 폐기의 목적과 기준, 방법, 빈도수에 관한

기술도 필요하다.

⑪ 평가 : 자료를 평가하는 방법과 평가의 목적, 기간에 관하여 기술한다.

⑫ 정책의 개정 : 장서개발정책은 영구적인 것이 아니다. 시대 상황의 변화나 대학의 교육목표 변화 또는 재정적인 지원 방법 등이 변경됨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따라서 장서개발정책은 현 실정에 맞는가를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개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류인석의 연구¹⁴⁾에 의하면 이렇게 성문화된 장서개발정책을 마련하여 실제 도서관에서 활용하는 정도는 10.5%에 지나지 않았고, 장서개발 구성 요소도 거의가 수서에 관한 것이었다. 앞으로 모든 대학도서관에서 일관성을 가지고 장서개발 업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성문화된 정책 제정이 필요하다.

3. 자료 선정의 주체

대학도서관 장서개발의 기획과 책임을 담당하는 선정 주체에 따라 장서구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부분의 대학도서관에서 자료 선정의 주체는 교수들이며, 사서는 극히 일부분인 교양도서 선정 및 교수들이 선정한 자료의 수집 업무만을 맡고 있다.

자료 선정자가 갖추어야 할 자질은 어떠한 것인지, 교수가 주체로 하는 자료 선정이 대학도서관 장서구성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인지 살펴보기로 한다.

14) 류인석. “한국대학도서관 장서개발정책과 지침작성에 관한 연구”. p. 133.

3.1 자료선정자의 요건

예산 및 인원 삭감, 자료 가격 상승으로 인한 경제적인 문제, 학문영역 확대와 전문화에 따라 이용자의 요구가 다양화 되어가는 학문분야의 문제, 폭발적으로 생산되는 정보에 대처해서 보다 효율적인 도서관 자료선정에 임하려면 자료 선정자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① 현재 진행되는 자료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자신이 책임지고 있는 분야의 자료를 선정하는데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노력을 계획하지 말아야 한다.
- ②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주제분야의 주요 자료에 대하여 알고 있어야 하며, 담당 분야의 주요 저작에 대하여 평가를 할 수 있어야 한다.
- ③ 담당분야의 전문출판사를 파악하고 그 출판사의 권위와 명성에 대한 평가를 내릴 수 있어야 한다.
- ④ 담당분야의 자료를 편견없이 공평하게 비판할 수 있는 안목을 키워야 한다.
- ⑤ 이용 대상계층과 그들의 수준을 파악하는 한편 이용자의 요구를 파악하기 위한 이용자 조사를 계속적으로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
- ⑥ 자료선택을 하는데 필요한 보조도구의 활용에 대한 이해 및 이용자의 요구와 그들의 환경을 이해하고 당 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장서를 파악하여 자료의 강약을 평가할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 ⑦ 이용자가 요구하는 모든 자료를 구비 할 수 없으므로 다수의 도서관간에 협동

체제를 형성하여 도서관 자료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된 정보봉사를 제공해야 한다.¹⁵⁾

3.2 대학도서관 자료선정 주체 로서의 교수

3.2.1 교수 자료선정의 장점

도서관 자료를 누가 선택해야 가장 훌륭한 장서구성을 하게 되며 나아가서 가장 효율적인 정보봉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사항은 장서구성의 기본적이고 절대적인 문제이다.

자료선택에 있어서 교수의 참여는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많은 연구가 발표되었다.

안영주의 논문에서는 교수진에 의해 선택된 자료는 교과과정을 위한 교육자료와 전문적인 연구자료인 반면 일반참고도서와 교양도서는 사서의 책임하에 선택하여야 하며, 장서의 전체적인 균형과 특징을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교수와 사서가 책임을 분담하고 상호협력하여야 함을 강조했다.

댄턴(P. Danton)의 연구에서는 독일의 대학에서 사서가 자료선정의 주권을 행사하였고, 학과에서는 교수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자료를 선택하였지만 교수는 사서보다 학과 관련도서와 학술잡지와 가까이 하기 때문에 학문 관계기관과의 접촉이 많으므로 자료선정에 그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15) 金丙柱. “대학도서관 장서개발에 관한 연구”, 《國會圖書館報》 제31권, 제4호(1994. 7-8). pp. 52-53.

봉크와 매그릴(W. Bonk & Magrill)은, 교수는 전공분야에 통달하였고 학위를 취득하였으므로 주제전문가이며 각 분야에 걸쳐 과거에서 현재까지의 학자들의 참여를 파악하여 그 분야의 저서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고, 자료가 그 주제분야에 기여한 점을 평가할 능력이 있으므로 자료선정자로서 요건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교과목을 담당하므로 학생들의 독서경향과 그 가치를 파악하고 도서관이 소장해야 할 자료를 파악하고 있으며, 출판자료를 선택할 때 필요한 보조자료에 대한 이해도 함께 가지고 있으므로 교수가 선정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하였다.

코사(G. Kosa)는, 교수는 구체적으로 각 주제분야의 문헌에 대하여 이해가 깊기 때문에 저작물과 저작자의 가치를 보다 정확하게 판단하며 교수와 연구자 그리고 학생들의 요구를 보다 깊게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므로 교수가 자료선정에 참여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하디스티(L. Hardesty)는, 교수는 여리 각도의 차질을 갖추고 있으므로 자신들의 주제분야에 대하여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 분야의 문헌과 정기간행물을 평가하는 능력이 있으며, 강의에 임하는 교수는 교과과정을 결정하며 학생들에게 과제를 주고, 이에 대한 결과를 평가하므로 학생들의 도서관 이용에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하였다.

조영주¹⁶⁾는 대학도서관의 이용자그룹인 교수와 학생은 학습 및 연구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가치 있고, 최신성이 있는 정보를 끊임없이 요구하며, 교수의 자료선정에 대한 찬반논란이 계속될지라도 사서의 능력과 도서관의 장서균형을 고려할 때 교수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은 도서관을 위해서 필요하며 개인적 편견과 이익을 배제한 장서개발 참여가 요청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대학에서 교수는 후진양성과 학문연구에 참여함으로써 지식을 습득하고 인격을 도야하며 사회를 이끌어나갈 준비를 하기 때문에 학습, 연구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료개발에 교수와 학생이 이용자의 입장에서 적극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렇게 교수는 주제전문가로서 전공분야에 대한 연구와 독서로 각 주제분야의 학자들과 주요 저작을 잘 알고 있으며 그 저작이 주제분야에 새로운 기여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다. 또한 강의를 함으로써 학생들이 필요한 과제물과, 교과과정의 변동사항, 학생들이 꼭 읽어야 할 장서 등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교수는 학생들의 도서관 이용에 가장 직접적이고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기도 하다.

3.2.2 교수 자료선정의 문제점

사서들은 자신의 업무도 있고, 대학의 모든 학과 전체 장서구성을 고려해서 선정해야 하므로 사서 개인이 각 전공서적을 선정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사서들은 전문분야에 대한 주제배경이 너무 없기 때문에 서명이나 서평을 보고 선정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경우에 실제로는 장서로서의 가치가 없는 자료가 선정될

16) 조영주. “대학도서관 장서개발과정에 있어서 교수, 학생, 사서의 역할: 동의대학교 도서관의 경우”, 『부산대 대학원 기고논집』 1(1991. 12). p. 65-69.

수도 있다. 아무리 서지나 서평을 보고 선정을 하더라도 그 주제에 대한 문외한인 사서는 자료선정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빠듯한 예산을 들여서 서명만 그럴듯한 자료를 구입하기보다는 도서관에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장서를 전문적으로 수집할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수진이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항상 사서보다 더 이용자에게 필요하고 적합한 자료를 선정할 수 있다는 논리가 일리가 있어 보이지만, 자료 선정자로서의 교수는 사서에 비해 도서관 장서를 전체적인 시각에서 조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전공 주제분야나 주 연구분야 자료를 편향되게 추천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교수들은 연구와 강의 준비, 교내외 활동 등으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자료 선정업무를 수행할 만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없다.

벌딕(C. Burdick)은 교수가 선택에 단순히 의무적으로 참여할 때는 지적 불균형을 이르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개인적인 연구과제에 필요한 자료만을 추천하는 폐단이 있으며, 최신자료에 대한 과다한 선호 및 편견을 가지는 경우가 있고, 더 나아가서 당 도서관의 장서현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으므로 주제서지학자(Bibliographer)를 활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쉐드(J. Schad)는 교수들의 편견을 선정자로서의 결격사유로 들고 있으며 교수보다 주제전문사서의 등장은 보다 홀륭한 장서를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왜냐하면 일반 사서들에게는 주제지식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사서에게 위임하기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 한편, 교수는 교과 과정 준비를 위한 자료, 학생들에게 부과한 과제에 관한 자료, 대학원 과정에 적절한 자료, 진행중인 연구과제에 필요한 자료 등 특정자료를 중점적으로 추천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무성의한 교수의 자료선정 태도는 장서의 불균형을 초래할 뿐이므로 주제전문사서를 선정에 참여시키는 것을 추천하고 있다.

김정근, 구영미¹⁷⁾는 교수의 선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4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① 도서관 전체 장서에 있어서 교수에 의한 선정비율이 너무 높다.

부산대의 경우 단행본 자료선정의 절반을 능가하고, 서양서를 비롯한 외국서 구입에서는 80%를 차지하여 도서관 전체장서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연속간행물의 경우에도 교수 요구 초점에만 맞추어져서 학생을 고려하지 못한 방향으로 장서가 구성될 수 있다.

② 각 학문의 기본장서라고 할 수 있는 책은 교수들이 소장하고 있어서, 추천을 하지 않으므로 기본장서가 도서관에 수집되지 않고 있다. 교수 추천에 의한 장서는 추천 교수 이 외에는 선정가치에 대해 평가를 할 수 없으며 이용면에 있어서도 비효율적인 면이 있다. 교수에 의해 선정된 장서는 도서관 장서라기 보다 개인 자료 구입에 가깝다.

③ 도서관 장서의 개인 장서화라는 측면에서 도서관 자료의 심한 불균형 현상

17) 김정근, 구영미. “교수는 적합한 선정자인가: 부산대학교 영문학 전공자를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2권, 제1호(2001. 3). pp. 165-167.

을 초래한다. 자료선택에 단순히 관행적으로 참여하거나, 자신의 개인적인 연구를 위한 자료를 선택한다면 도서관 전체 이용자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자료가 선정되지 못하여 불균형을 초래한다.

④ 교수에 의한 도서추천은 체계적인 도서관 장서개발의 결림돌이 되고 있다.

장서개발은 수집계획과 실제 수서, 평가의 세 단계로 상호 연결되는 개념이라 볼 수 있다. 장서개발이란 도서관의 목적과 단기목표, 우선 순위에 따른 수집계획을 수립한 후, 위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서를 수집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수집할 장서를 도서관의 목적과 목표에 관련시켜 평가하는 단계로 순환된다.

따라서 장서개발은 도서관 자체가 가진 목표에 부합하는 체계적이고 계획성 있는 자료선정에서 시작되어야 하는데, 교수가 전체 도서관 자료선정의 절반을 넘게 차지하고 있으며, 교수 추천도서를 도서관 장서로서 아무런 타당성 검증없이 구입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체계적인 장서개발은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파생되는 문제점들을 고려하여, 도서관 자료선정에서 사서의 적극적 개입이 불가피해 진다.

3.3 교수 主導 자료선정의 개선 방향

① 도서관 장서의 대부분을 교수 추천에 의해서 구입하고 있는 것은 장서개발의 의의와는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다. 펭(Y.T.Peng)의 말대로 숲을 조성하는 것이 장서개발이라면, 정밀한 계획아래 순차적

으로 나무를 심어가야 하는데, 그때 그때의 추천 시기에 따라 교수의 연구주제와 관심에 따라 선정되는 자료는 숲을 가꾸는 데는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사서의 선택영역은 극히 제한되고, 자료 선정보다는 추천 장서의 취합이나, 복본조사 후 구입하는 업무에만 치중하게 되어 진정한 장서개발이 되지 못하고 있다. 장서개발은 사서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선정을 통해서만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전체적으로 장서를 조망하여 부족한 부분을 채워 주고 도서관의 핵심장서(core collection)를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업무를 수행하여 수동적으로 행하던 업무에서 탈피하여 적극적인 업무 수행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핵심장서는 장서개발의 중요한 개념으로 그 분야의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이 되는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핵심장서 리스트는 주제, 형태, 도서관 종류를 고려하여 이루어진다.¹⁸⁾

② 한정된 도서구입 예산을 사서가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자료선택에 있어서 신중을 기함으로써 이용자에게서 최대의 만족을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한다. 즉 추천한 자료를 무조건 구입하던 관행에서 과연 장서로 적합한가를 평가한 후 구입하도록 해야 하며, 적합성 평가를 하기 위해서 성문화된 선정기준이 갖추어져야 한다. 기본 장서를 비롯하여 대학도서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연구서와 교양자료, 참고자료 등을 이용자의 요구와 도서관 수준에 맞게 수집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선정기준이 필

18) 李蘭珠. “인터넷 정보자료 선택에 관한 고찰”. 《國會圖書館報》 제35권, 5호(1998. 9-10). p. 12.

요하다. 물론 이것은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서의 주도에 의해서 가능하다. 이렇게 적합성을 평가한 후 구입한 장서는 이용자에게 외면당하지 않을 것이다.

자료가 서가에 배치되어 상당히 기간이 지났는데도 전혀 이용이 되지 않은 책, 즉 대출의 흔적이 없는 무이용(zero use)로서에 대한 원인분석에서 구자춘¹⁹⁾은 학교 교과과정 혹은 교수나 학생들의 흥미에 부적당한 것, 고도로 전문적인 내용을 다룬 것, 외국어로 쓰인 자료, 무이용된 자료보다 더 내용이 충실한 자료가 도서관에 있는 경우의 네 범주로 규명하였고, 오코넬(O'Connel)은 현재의 도서관 현실과는 거리가 있는 폐가식제도와 도서관봉사의 적극성 결여, 도서관에 대한 이용자들의 불신, 외국어에 대한 높은 비율, 도서관 이용지도의 결여, 수서정책의 부재 등을 지적하고 있다.

③ 장서개발위원회(자료선정위원회)가 지금까지는 실무사서가 배제되고 교수진이나 경영진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갔는데, 사서진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수서 담당자만 자료를 선정하지 말고 직접적으로 이용자와 대면하여 이용자들의 요구를 잘 파악할 수 있는 지원부서 사서들의 조언을 얻는다.

⑤ 각종 인터넷 서점의 서평이나 각종 서지도구 및 국내외 출판관련 저널, 서평 등 자료선정 선택도구들을 적절히 활용하여

가치있는 자료를 선정해야 한다.

⑥ 사서에게 부족한 지식 보완 및 각 학문의 핵심장서 구축을 위해 교수진의 협력을 얻는다. 교수는 각 주제학문에 대한 지식과 연구동향, 기본장서가 될 수 있는 장서를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⑦ 각종 서지도구나 서평 등을 교수들은 사서보다 접하기 어려우므로 교수들에게 적극적으로 이것들을 제공하여 자료선정에 협조하여야 한다. 대학도서관의 자료 선정과정은 사서와 교수가 함께 참여하는 협동적 업무수행이 적극 요구된다.

⑧ 핵심적인 장서를 구축하기 위해서 사서는 각 주제에 대한 지식 및 의견을 넓히고 사서업무의 폭을 넓혀가려는 의지가 필요하다. 도서관 장서에 대한 전체적인 안목과 장서개발에 대한 인식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⑨ 핵심장서 구축을 위해서는 자료선정에 있어서 교수진의 영향을 조정하고, 체계적으로 도서관 장서를 구성하기 위한 사서진의 적극적인 개입이 요구된다.

4. 대학도서관 장서개발을 위한 발전적 제안

지금까지, 장서개발을 실시해야 하는 이유와 장서개발을 실시하기 위한 장서개발 정책의 세부 요소, 그리고 장서개발의 핵심부인 자료 선정의 주체에 관해서 알아보았는데, 대학도서관에서 장서개발을 위하여 어떠한 일을 해 나가야 하는지 알아보겠다.

19) 구자춘.“대학도서관장서의 별무이용도서 원인 분석:고려대학교 과학도서관 물리학,화학,화학공학분야 장서를 대상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5. p. 57.

4.1 협력적 장서개발의 활성화

대학도서관은 협동수서, 공동접근 및 상호대차 업무를 활성화 하기 위한 도서관자원 공유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²⁰⁾

장서개발 담당 사서는 다른 도서관과 함께 이용할 유용한 자료를 선택하여 장서화 하고, 필요없는 자료는 협력 도서관간에 합의하여 폐기하며 단일자료는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²¹⁾

정보기술의 도입으로 서지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되어 비소장자료에 대한 구입, 상호대차, 원문제공 서비스 등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정보기술 도입 활성화로 비소장자료에 대한 이용자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도서관 협력활동의 필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자원을 공유함으로써 재정압박으로 인한 장서개발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잠재적 이용자를 위한 연구장서 및 핵심장서 구축에 필요한 여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며, 국가정보자원의 활용을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자료접근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접근비용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도서관 소장자료에 대해서는 무료이면서 원격 접근을 통한 자료제공 서비스는 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문제점 해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4.2 자료의 성격에 따른 자료 유형별 구입계획 수립

정보기술의 도입으로 인하여 장서형태의 다양화와 전자형태 장서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도서관들은 CD-ROM 정보서비스 및 온라인 정보서비스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료구입 예산이 삭감된 상태에서 전통적인 출판물과 더불어 전자출판물까지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인쇄 출판물의 구입이 줄어들고 있다.

주요 국립대학교 도서관²²⁾들의 경우에도 5년전에 비하여 2000년도의 연속간행물 구입 예산은 47.05% 상승하고 장서량은 102.59% 증가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인쇄본 연속간행물의 경우는 오히려 6.74%가 감소하였고, 전자저널 구독으로 인한 종수 증가가 연속간행물 증가로 나타난 것이다. 점차적으로 단행본의 증가율은 둔화되는 추세이고, 연속간행물 중 전자저널의 증가율이 높아지고 있다.

전자매체를 도서관 장서로 통합하기 위한 적극적인 장서개발정책이 수립되어야 하겠지만, 해당 도서관의 목표와 자료가 가지고 있는 성격에 따라, 이용자의 이용행태나 정보 요구량을 계량적으로 파악하여 인쇄매체구입 예산과 접근제공 예산간의 균형을 조절하여 구입해야 할 것이다.

4.3 도서관의 특성화 지향

예산의 삭감과 자료 가격 상승 및 자료 유형 다양화로 자료 구입 사정이 약화되

20) 강숙희, “정보기술이 대학도서관 장서개발에 미치는 영향과 전자정보서비스의 관계”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3권, 제1호(1999.3), p. 46.

21) Chapman, Liz; 안정아 역. 前揭書. p. 82.

22) 앞에서 밝힌 9개 국립대학교 도서관임.

고 있는 실정에서 각 대학도서관마다 고유의 특성을 살려서 자료를 수집한다면 자원공유에도 많은 이점이 있고, 예산 사용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이다.

도서관간에 상호 협력체결만 한다고 모든 서비스를 그냥 제공할 수는 없다. 타 도서관과의 협력체계를 이루려면 다른 도서관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장서가 어느 정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모든 도서관이 같은 자료만을 소장하고 있다면 자원의 공동이용은 불가능해질 것이다. 예산이 적고 소규모의 도서관일수록 특성화의 지향은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면, 육군사관학교 도서관의 경우 군사 전문도서관을 지향하여 국내에서 발행되는 모든 군사관련 자료는 망라적으로 수집하고 있으며, 해외에서 발행되는 군사 관련 자료도 여러 경로를 통하여 수집하여, 군사자료가 필요한 모든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4.4 핵심장서 구축

각 학문분야의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이 되는 핵심장서의 구축은 대학도서관의 장서구성을 튼튼하게 하며, 핵심장서는 이용도가 가장 높기 때문에 인쇄형 실물자료를 중심으로 수집, 구성하여 소장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핵심장서(core collection)에는 각 학과(전공)의 교육 및 연구활동에 반드시 필요한 교재, 기초 이론서, 핵심잡지, 주요 참고자료(용어사전, 백과사전, 색인초록지, 서지데이터베이스, 통계자료, 법령집), 정부간행물과 문서자료, 연구보고서, 학위논

문 등이 포함된다.

이 가운데 핵심잡지는 영향계수나 인용빈도 조사 및 전문가의 평가로 확인할 수 있다.²³⁾

그리고 인터넷으로 몇몇 도서관의 목록에서 관심분야의 수준 높은 자료 중 중복되는 자료를 핵심장서로 간주하여 리스트에 포함시킬 수도 있다.

각 학과의 자료선정이 대부분 교수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교수들이 학과의 핵심장서를 선정할 수 있도록 사서들이 보다 접하기 쉬운 각종 서지도구나 서평을 교수에게 적극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구자춘의 무이용(zero use)도서에 대한 원인분석 중에서 학교 교과과정 혹은 교수나 학생들의 홍미에 부적당한 것을 들고 있는데, 이러한 무이용 도서들은 핵심장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용되지 않는 것이며 핵심장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4.5 장서개발위원회(자료선정 위원회) 활동 강화

대부분의 대학도서관에서 원활한 장서개발정책 수립을 위하여 자료의 선정, 별치, 그리고 폐기 등 장서개발정책에 관한 제반 문제에 대하여 심의와 조정 역할을 하는 장서개발위원회를 두고 있다. 그런데 위원회 위원들의 구성이 교수 및 대학의 경영진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도서관의 사정에 어둡고 별로 관심이 없다. 위원회 회

23) 윤희윤.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장서개발의 기본방향과 전략적 방안”, 《도서관》Vol.54, No.2(1999, 여름). p.14.

의시에도 선정한 자료의 심의만 하고, 적극적인 활동은 거의 없다. 도서관의 실무진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야 하고, 장서개발 및 예산 증액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 및 활동을 하여 위원회 업무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4.6 장서 폐기 규정 활용으로 공간 확보

종래의 도서관에서는 대학도서관 자료 기준 및 대학종합평가 때문에 다량의 복본 및 구간본을 비치하게 되었다. 이러한 자료들은 현재 거의 이용되지 않고 서가만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자료를 구입하여 서가에 비치하려고 할 때 공간 부족과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장서개발정책 세부 지침이나 도서관 내 규에 규정된 조항을 근거로 학술적 가치를 상실한 자료, 과·오손이 심한 자료, 과다한 복본자료, 기증 및 교환에 의하여 수집된 가치가 없는 자료, 각 분야의 개론서로 가치가 없어진 구간본, 신판이 출판된 동일 종류의 구판 자료 등²⁴⁾을 폐기하여

이용자들의 서가이용 및 신규 입수도서 배치에 편리하도록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5. 결 론

IMF 사태 이후 도서관의 예산 및 인원 문제가 도서관 장서개발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더욱이 1990년대 후반부터 정보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도입으로 우리나라 대학도서관들의 장서개발 동향이나 전략이 급속히 바뀌어 가고 있다.

그동안 많은 도서관들이 장서개발정책이 없었고, 있어도 일부 수서업무에만 해당되는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대학도서관의 장서개발은 미미한 것이었고 장서량만 채우기에 급급해서 자료가 편중되고 과다한 복본이 서가를 채우는 장서구성이 대부분이었다. 이제 대학도서관 실무에 맞게 상세한 지침을 갖춘 성문화된 장서개발정책으로 짜임새 있는 장서구성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대학도서관 자료 선정의 주체는 교수들이었고, 교수는 주제전문가로서 전공분야에 대한 연구와 독서로 각 주제

24) 육군사관학교 도서관 내규(1972. 6. 1. 제정, 2000. 7. 1 부분개정)의 제23조 장서점검 및 폐기의 2항에 있는 내용으로 다음과 같다.

제적기준 : ①학술적 가치를 상실한 자료로 인정된 자료 ②파손, 오손이 극심하여 보수가 불가능한 자료 ③필요 이상의 복본자료 ④기증 또는 교환에 의하여 수집된 자료로서 가치가 없거나 도서관 목적(군사적 특성이나 학처(과)별 요구)과 직접 관계가 없는 자료 ⑤각 분야의 개론서로서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오래된 자

료 ⑥신판이 출판된 동일 종류의 구판 자료 ⑦장서점검 결과 3~5년간 계속 발견되지 않은 자료 ⑧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망실자료 자료폐기, 제적 범위: ①자료폐기 및 제적 범위는 당해년간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3 이내로 하되 당해년도 수입 장서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②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자료 망실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분야의 학자들과 주요 저작을 잘 알고 있으며, 그 저작이 주제분야에 새로운 기여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또한 강의를 함으로써 학생들이 필요한 과제물과, 교과과정의 변동사항, 학생들이 꼭 읽어야 할 장서 등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교수는 학생들의 도서관 이용에 가장 직접적이고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기도 하다.

하지만 자료선정자로서의 교수는 사서에 비해 도서관장서를 전체적인 시각에서 조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전공 주제분야나 주 연구분야 자료를 편향되게 추천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교수들은 연구와 강의 준비, 교내외 활동 등으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자료선정업무를 수행할 만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없다.

그렇다고 교수들이 선정하던 전공분야 장서를 사서들이 전적으로 선정하기에는 전문적인 식견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존대로 교수들이 선정을 하되, 사서들이 접하기 쉬운 서지도구나 서평들을 적극적으로 제공하여, 교수들의 전문적인 주제분야의 지식을 최대한 활용하여 전공분야의 핵심 장서를 선정해서 도서관 장서구성이 균형을 이루도록 협조하며 긴밀한 유대관계를 갖도록 한다.

도서관이 정보의 형식이나 소재에 구애 받지 않고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제공 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소장할 수 없기 때문에 도서관간의 협동 장서개발을 활성화해야 하지만, 모든 도서관이 정보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하는데 의존한다면 어떤 도서관도 제공해 줄 자료가 없을 것이고, 잡지의 구독 취소가 증가하고 원문제공サービ-

스에만 의존한다면 인쇄잡지 출판업도 쇠퇴하여 결과적으로 원문제공도 불가능해 질 것이므로²⁵⁾, 각 도서관들은 대출빈도가 높거나 관내 이용이 활발한 단행본과 학술지 등의 핵심장서를 수집하여 소장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즉 장서는 인류의 장구한 역사 그 자체인 동시에 지식창조와 사회변혁의 원동력이 되는 기록매체의 집성체이며, 도서관의 존재이유를 정당화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²⁶⁾이고, 미래에도 인류의 각종 기록을 후세에 전하는 역사적 기능, 교육 및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학술적 기능, 교양자료를 제공하는 문화적 기능, 지식정보를 유통시키고 재생산하는 중개적 기능, 자료접근과 정보이용을 촉진하는 서지적 기능 등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원격접근을 위하여 실물장서를 사장시켜서는 안 된다.

그리고 개별 도서관마다 특성화를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며, 인쇄본과 전자매체의 균형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장서개발위원회는 장서개발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 및 조정하기 위해 존재해 왔지만, 위원 대부분이 교수 및 경영진이므로 도서관 장서현황 및 사정에 밝지 못하기 때문에 실무 사서진 등 장서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위원회가 형식에 치우치지 않는 실질적인 기구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많은 서가를 점유하며 오랜 기간 이용되지 않는 과다한 복본도서를 장서개발정

25) 이하범. 前揭書. p. 193.

26) 윤희윤.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장서 개발의 기본방향과 전략적 방안”, 《도서관》 Vol.54, No.1(1999, 여름). p. 35.

책 세부지침 및 내규에 있는 “폐기” 조항에 맞추어 과감히 폐기한다면 이용자 및 신규자료를 위한 공간이 확보되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게 될 것이다.

맥리쉬(Macleish)는, 장서개발을 “화환한 묶음이 지니고 있는 특성이나 미를 살리면서도 이 꽃들 개개가 전체 속에서 조화와 균형이 유지되도록 꾸미지 않으면 안된다”²⁷⁾고 하였다. 윤희윤²⁸⁾이 자료선택의 가치론 대 요구론, 인쇄자료 대 전자매체, 실물소장 대 원격접근 등 도서관 장서 관리에서 이제껏 대립적이던 패러다임이 상호 보완적인 것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하듯이, 이들 하나하나를 개별적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들을 모아서 세트(set)화 시켜서 조화를 이룰 때 진정한 장서개발이 이루어질 것이다.

특히 장서개발을 담당하는 사서들이 주제 전문적인 지식과 자료에 대한 지식을 갖추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자료 선정도 구를 깊이있게 응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교수들이 주체가 되어 선정하는 전문적 학술자료 선정을 보완할 수 있도록 실력을 연마하는 것이 장서 개발의 핵심이라 할 균형 있는 장서구성을 위하여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참 고 문 헌

- 27) 梁炳訓. “대학도서관 자료선택과 장서개발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장서구성 측면을 중심으로”, 《崇義論叢》 10집(1987. 3). p. 288.
- 28) 윤희윤. “도서관 장서관리의 대립적 패러다임 분석”, 《國會圖書館報》 제38권, 제1호(2001. 1-2).

장숙희. “情報技術이 大學圖書館 藏書開發에 미치는 影響과 전자정보서비스의 關係” 《한국문현정보학회지》 제33권, 제1호(1999. 3). pp. 23-48.

구자춘. “대학도서관 장서의 별무이용도서 원인 분석: 고려대학교 과학도서관 물리학, 화학, 화학공학분야 장서를 대상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5.

國立大學圖書館 基本統計, 15집(1997)-19집(2001). 國立大學圖書館協議會.

金丙柱. “대학도서관 장서개발에 관한 연구”, 《국회도서관보》 제31권, 제4호(1994. 7-8). pp. 48-60.

김성호, 김현수. “大學圖書館 藏書開發에 관한 小考”. 《國立大學圖書館報》 제13집(1995). pp. 195-200.

김수영. “대학도서관 장서개발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한성대학교 문현정보학과 창립 20주년 기념논문집』 pp. 321-343.

김정근, 구영미. “교수는 적합한 선정자인가: 부산대학교 영문학 전공자를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2권, 제1호(2001. 3). pp. 151-171.

김정근. “대학도서관에 있어서 사서중심의 장서개발은 가능한가?: 부산대학교 도서관을 중심으로”, 《圖書館學論集》 제20집(1993. 12). pp. 61-105.

_____. “대학도서관 장서개발 문제: 80년대 부산대학교 도서관을 중심으로”, 《도서관문화》 Vol.34, No.6 (1993. 11 - 12). pp. 411-426.

- 류인석. 『자료개발정책론』. 서울 : 한국 도서관협회, 1998. pp.1-107.
- _____. "한국 대학도서관의 장서개발정책과 지침작성에 관한 연구", 《도서관학》 제22집(1992.6). pp.109-141.
- _____. "한국대학도서관의 장서개발정책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2.
- 송영희 외. 『장서개발론』. 서울 : 구미무역, 1992. pp. 31-58.
- _____. "한국 대학도서관의 장서개발정책과 지침작성에 관한 연구", 《도서관학》 제22집(1992. 6). pp. 109 -141.
- 양병훈. "대학도서관 자료선택과 장서개발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장서구성 측면을 중심으로", 《崇義論叢》 10(1987.3). pp. 269-292.
- _____. "대학도서관 장서개발을 위한 계량적 분석:장서 효율성을 중심으로", 《도서관》 Vol.41, No.3(1986, 가을). pp. 5-36.
- _____. "大學圖書館 藏書評價方法 考察:藏書開發 側面을 중심으로", 《국회도서관보》 제28권, 제4호(1991. 7-8). pp. 42-57.
- _____. "資料選擇理論에 관한 考察", 《국회도서관보》 제30권, 제4호(1993.7-8). pp.18-29.
- 윤희윤. "도서관 장서관리의 대립적 패러다임 분석", 《국회도서관보》 제38권, 제1호(2001. 1-2). pp. 44-64.
- _____.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장서개발의 기본방향과 전략적 방안", 《도서관》 Vol.54, No.2(1999, 여름). p.3-39.
- 李蘭珠. "인터넷 정보자료 선택에 관한 고찰", 《국회도서관보》 제35권, 제5호(1998.9-10). pp. 3-16.
- 이하범. "학술정보의 전자적 배포와 대학도서관 장서개발 정책의 변화" 《사대도협회지》 창간호(2000.1). pp.183-203.
- 조영주. "대학도서관 장서개발에 있어서 교수, 학생, 사서의 역할:동의대학교 도서관의 경우" 《부산대 대학원 기고논집》 1(1991. 12). pp. 62-71.
- 조은미. "대학도서관 장서개발정책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인식조사를 기초로 하여", 상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 Chapman, Liz ; 안정아 역. "도서관의 협력적 장서개발:자료의 공공구입을 통한 경제성 향상", 《국회도서관보》 제35집, 제4권(1998. 7-8). pp. 75-82.